백운산 '고로쇠' 물 올랐다

광양시, 내달 5일부터 채취 판매…순천 조계산 등 본격화

'신비의 생명수'로 불리는 고로쇠 채취가 광양 백운산을 비롯해 순천 조계산, 구례 지리산, 장성 백암산, 화순 모후산 등지에서 다음달 초부터 본격화된다.

광양시는 다음달 5일부터 3월 31일까지 백운산 일원에서 고로쇠를 본격적으로 채취해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통일신라시대 도선국사가 수도 정진중에 음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광양 백운산 고로쇠약수는 지난 2008년 수액부분 전국 최초로 산림청 제16호로 '지리적 표시' 등록을 마쳤다.

지난해부터는 봉강면 조령리 하조마을 등 8개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정제시설에서 정제과정을 거친 후 약수통 주입구에 생산연도와 일련번호를 부착·판매함으로써 타 지역에서 채취되는 고로쇠와 차별화하고 있다.

또한 고로쇠 채취농가를 중심으로 '광양백운산 고로쇠약수 영농조합법인'을 구성, 약수의 채취 및 유통 전 분야에서 엄격한 자체기준을 정하고 지역별로 관리원을 지정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광양 백운산 고로쇠의 명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엄격한 자체기준과 정제된 고품질 광양 백운산 고로쇠는 18ℓ 기준 1통에 지난해와 같은 6만원에 판매된다.

전남도는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광양·순천·담양·곡성·화순·고흥·장성·구례 등 도내 8개 시·군 고로쇠 생산농가 688명을 대상으로 품질관리와 유통체계 확립 등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도는 올해 도내 3089ha(12만2400여그루)에서 123만3000여ℓ의 고로쇠를 채취, 총 32억원(농가당 5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는 128만2000ℓ를 채취, 31억원의 판매소득과 음식·숙박 등을 통한 11억원의 농외소득을 올렸다.

한편 고로쇠 약수는 고로쇠 나무 등에 1~3cm 깊이의 구멍을 뚫고 호스를 꽂아 흘러내리는 수액을 받으며, 뼈에 이롭다는 뜻의 한자어 '골리수(骨利樹)'에서 유래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한방카페로 건강 드시러 오세요" 순천지역 봉사단체인 '희망누리 봉사단'에서 운영하는 이색 한방카페가 행동 '문화의 거리'에 문을 열었다. 한방 카페는 '내 몸에 맞는 한방 차와 약이 되는 음식'을 테마로 순천대 한의학 연구소의 전문교육을 수료한 회원들이 직접 제조한 한방차와 약선음식 5종을 판매한다. 〈순천시 제공〉

'순천 동천' 물빛 휴식이 흐르네

자전거 도로 등 개설…시민 운동공간 각광

순천 도심을 가로지르는 동천이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운동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순천시는 동천을 1급수로 유지하기 위해 석현저수지에서 12만t의 유지용수를 확보하고 22곳에 총 117개의 운동기구와 7개소의 화장실을 설치,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서면 선평리에서 맑은물 관리센터까지 총 18.5km의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시는 올해 깨끗한 환경과 수질을 위해 동천 상류부에 퇴적돼 있는 토사 20여만㎥를 준설하고 1억원의 사업비로 운동기구와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한다.

또 사업비 5억원을 투입, 동천 수변공원에서 풍덕교 구간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분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2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꽃단지 및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오는 2013년까지 동천 전체구간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분리사업을 완료하고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 동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휴식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선박 검문검색' 수배자 검거 톡톡

여수해경, 지난해 150명 입건…전년비 20% ⬆

여수 해양경찰의 선박 검문검색 활동이 기소중지자 등 수배자 검거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지난해 여수시와 고흥군 등 전남 동부지역 주요 항·포구를 출입하는 여객선과 낚싯배, 어선 등을 대상으로 선박 검문검색을 통해 모두 150명의 기소중지자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9년 모두 125명이 검거된 것에 비하면 20%가량, 2008년 136명에 비해서는 10.3%가량 늘어난 것이다.

수배자들의 범죄 유형은 사기·횡령 혐의가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10건을 비롯해 강·절도, 수산업법, 병역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일거양득' 고흥 딸기 수경재배

수확작업 관리 쉽고 수확량 54% 증가

고흥군이 지난 2008년부터 딸기를 친환경 고설(高設) 수경재배해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딸기 고설재배 방식은 지상 1.5m 높이에 베드를 만들어 수경재배하는 방법으로 일반 토경(土耕)재배에 비해 수확작업과 관리가 쉽고 수확량도 54% 증가한다.

또한 천적(天敵)을 이용해 해충을 방제하고 아스파라거스와 설탕을 발효시켜 영양제로 사용하는 등 친환경 무농약 재배를 실천하고 있으며, 출하가격도 일반 딸기에 비해 30%정도 높은 편이다. 현재 고흥에서는 5농가가 1.5ha에서 고설 방식으로 딸기를 재배하고 있다.

딸기 농가 박상기(대서면 송강리)씨는 국내 육성 딸기품종인 '설향'을 재배, 지난해 12월 초부터 오는 6월까지 수확할 예정이며 현대백화점에 납품해 5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관내 딸기농가들이 병해충이 없는 안전 고품질 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곡성 통합체육회 출범

이원화됐던 곡성군 체육단체가 통합돼 운영된다.

곡성군체육회(회장 허남석)와 생활체육회(회장 고구주)는 최근 곡성군 통합체육회로 새롭게 출범했다.

그동안 양 체육단체에서 통합의 필요성은 느껴왔지만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했으나 민선 5기에 들어서면서 통합에 적극성을 보여 곡성군 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해 수차례 협의한 결과 지난 12월에 이사회 및 총회를 열어 규약을 확정하고 임원진을 선임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전 북

새만금 외지업체가 '싹쓸이'

방조제 공사 92% 수주…도내 건설업체 대책 마련 호소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방조제 공사를 비롯해 도내 대부분 관급공사를 외지업체가 '싹쓸이'해 도내 건설업체들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24일 전북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방조제 공사의 92%를 외지업체들이 수주했다.

전북지역 건설업계는 지난 2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지역건설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대책회의를 통해 "최근 1군 업체가 줄도산한 도내 건설업계는 다른 지방 관급공사를 따낼 힘도 잃고 도내 관급공사라도 지역업체 몫을 늘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회의는 정헌율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건설업계를 비롯해 익산국토청, 조달청, 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등 유관 기관단체 대표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건설협회 이선홍 전북도회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숙련공조차 날품팔이를 찾아 타지를 떠도는 실정이다.

더욱이 1군(전국 150위권) 건설업체 5개 모두 무너지면서 타 지방 공사는 커녕 도내 관급공사조차 수주하기 힘들다"며 "도내에 산업체 투자가 늘면서 공장 건설공사도 많아졌지만 실상은 타지 건설업체가 독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건설협회 한기봉 전북도회 사무처장은 "지방 건설사는 기술력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기피당한다"며 "그러나 선도업체는 기술력을 충분히 갖췄는데도 핑계거리로 자주 활용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런 문제는 전북도가 조사한 도내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현황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도와 시·군이 발주한 주요 공사(10억원 이상) 총 4564억여원 중 17.5%(797억여원)를 다른 지방 건설업체가 따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일반도급 3535억여원 가운데 12.6%(446억여원), 공동도급은 1028억여원중 34.1%(350억여원)를 타지역 업체가 수주해갔다.

특히 총 2조9000억여원이 투자돼 지난해 4월 준공된 새만금방조제 공사는 92%를 다른 지방 건설업체 몫이었다고 전문건설협회는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주요인을 영세한 지방업체 참여가 힘든 입찰제한(지방사업 284억원 이상, 국책사업 95억원 이상·국제입찰 기준)을 꼽았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업계는 지방업체 낙찰이 쉽도록 분할발주와 함께 일반 건설과 전문 건설이 상생토록 '일정비율의 하도급 의무화' 등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활기 찾은 '순창 전통시장'

현대화 효과…이용객 2배·거래량 3배 증가

순창 전통시장이 최근 현대화사업 마무리와 함께 옛 명성을 되찾고 있다.

순창군은 "재래시장의 주 고객층인 농촌지역 노인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전통시장내 군내버스 정류장을 설치하고 장날에 시장을 경유 운행함으로써 이용객이 늘고 농산물 거래도 급증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동계·복흥·쌍치면 지역 주민들의 경우 터미널에서 재래시장까지 800m를 걸어야 했던 불편함으로 인해 순창읍 재래시장 대신 남원 용남시장과 정읍 재래시장을 이용해 왔다.

하지만 순창읍 재래시장을 경유하는 버스가 운행됨에 따라 최근 5개월여 동안 평년대비 2배 이상의 이용객이 증가했고, 농산물거래도 3배 이상 활발해졌다.

순창군 관계자는 "앞으로 순창 전통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장류고장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먹거리촌을 조성해 순대촌과 함께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장터를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강인형 순창군수와 군청 전 직원들은 26일 설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끊이지 않는 익산시 '뇌물수수'

담당 공무원이 '마실길' 업체에 금품요구

익산시가 끊이지 않는 직원들의 뇌물수수로 홍역을 앓고 있다.

전북 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익산시청 환경위생과 사무실과 공무원 A씨 자택 등 4곳에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환경위생과 공무원 K씨는 익산시 함라읍, 웅포면, 성당면, 금마면의 자연생태와 백제시대의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생태문화탐방로 사업인 '예향천리 마실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체에 금품을 요구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09년 말 익산시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에스코사업) 담당 공무원이 뇌물수수로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바 있다.

시민 신모(43·평화동)씨는 "철저한 수사와 함께 재발 방지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 33.2% 성장

지난해 전북지역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1억3772만8000달러로 2009년 대비 33.2%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증가율 21.8%보다 11.4% 높은 성장률로 9개도 가운데 수출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2000만달러 수출액을 달성한 장미와 1500만달러의 김이 40%가 넘는 성장률로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의 견인차 구실을 했다.

또 파프리카와 백합 등 일부 신선농산물의 경우 올해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내수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출실적이 다소 하락했으나 화훼류·장류·닭고기·조미김·조개류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09년 대비 3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김응철기자 knews@

단 신

'전주국제영화제' 관객평론가 모집

(재)전주 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송하진)는 다다음달 25일까지 '제12회 전주국제영화제' 관객평론가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 확대 및 질적 향상을 위해 올해로 7회째 운영되는 관객평론가 프로그램은 1차로 지난해 개봉된 한국 장편영화에 대한 영화평(원고지 15자 내외) 심사와 2차 필기시험(영화비평작성), 개별면접을 통해 선발된다.

한편 올해 전주영화제는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다. 문의(02-2285-0562)

/전북취재본부=김응철기자 k0765@

정읍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자 90명 모집

정읍시는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과 청년미취업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90여 명을 모집한다.

참여자격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 가운데 ▲가구소득 최저생계비 120% 이하 ▲세대재산 1억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총 4개월간 진행되며, 하루 3만8000원의 임금이 지급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익산시 이주여성 우편물 국제운송료 지원

익산시는 익산우체국,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결혼 이주여성들이 명절을 맞아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국의 정을 담은 선물을 보낼 수 있도록 국제운송료를 지원하는 '이주여성 고국에 정(情) 보내기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익산우체국은 운송비의 15%를 지원, 물품 배송시 1만원 상당의 생필품과 포장재료 등을 함께 제공한다.

결혼 이주여성은 다음달 말까지 관내 각 지역 우체국에 접수를 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군산 새만금 국제 마라톤대회' 4월 24일 개최

세계 최장의 방조제(33km)위를 달리는 '제 8회 군산 새만금 국제 마라톤대회'가 4월 24일 개최된다.

대회종목은 5km·10km·하프코스·풀코스이며, 비응항에서 출발해 신시도, 야미도, 신시 배수갑문을 거쳐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코스이다.

참가접수는 오는 3월 25일까지 홈페이지 (www.smgmara.org) 또는 전화(063-452-7731, 450-4254)로 하면 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光州日報 전북취재본부

군산 박금석 국장	☎467-2500
전주 강철수 국장 김응철 기자	☎214-6113
정읍 박기섭 국장	☎ 531-5544
익산 류정영 부국장	☎ 835-3133
순창 이동희 부장	☎ 653-0444
남원 백 선 차장	☎ 633-9911
김제 홍윤선 기자	☎ 214-6113
부안 윤길호 기자	☎ 214-6113
고창 김응철 기자	☎ 214-6113
임실 서은종 기자	☎ 653-0702